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 3월 2주차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한국, 사드, 까르푸, 소비자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중국, 한국, 사드, 까르푸, 소비자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2.27
롯데, 사드배치
부지 제공 승인

2016.3.4
롯데, 중국 점포
영업정지 조치
23곳으로 증가

2017.3.5
까르푸, 매장 내
한국제품 철수

2017.3.7
로터스,
한국 판촉전
취소

핵심이슈
도출

“중국, 사드 여파로 한국산 식품 불매운동 확산”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중국, 사드 여파로 한국산 식품 불매운동 확산

대형마트 내 한국 제품 철수 및 대형마트의 한국 식품 판촉전이 연달아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는 한국제품 구매를 하지말자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등 한국산 불매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우려한 업체들이 한국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중국 마트체인인 다룬파(중국 전체 내 365개 매장 보유)는 전 점포에서 롯데제과 및 롯데 칠성 관련 제품을 철수한다고 발표되었다. 현재 사드 배치에 부지를 제공한 롯데 제품 내 퍼지고 있는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롯데칠성의 음료수를 대량 폐기하고 이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서도 한국산 불매 운동에 대한 여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 제품으로 오해 받거나 한국 대표 브랜드로 여겨지는 오리온이나 농심 제품도 현지 매장에서 일부 철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할 예정인 롯데 외에도 국내 식품 대기업들로도 불뚝이 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오리온 측은 “우리는 롯데와 다르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오리온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 유통체인 뿐만이 아니다. 프랑스계인 까르푸는 이번 달 6일부터 베이징 12개 매장 내에 롯데 우유를 비롯, 서울우유와 연세우유 등 한국산 우유 구매를 중단하고, 우유 외에 제품도 점진적으로 매장에서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태국계 유통체인 로터스는 3월 22일부터 2주동안 광둥성 내에서 한국 식품 판촉 행사를 펼칠 예정이었지만, 이를 향후 별도의 일정 계획없이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에 보낸 공문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로터스는 한국의 사드 배치와 한중 관계로 인해 판촉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향후 사드 배치가 진행이 될수록 중국 측의 통관검역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영 언론매체 기사 등을 통한 반한 의식이 고조되면 현지 한국산 농식품 취급 및 소비 감소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철수'등의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 브랜드력을 강조하는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특사 파견, 태스크포스 발동 및 유관기관 협업 대응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티베트 분리주의 지원으로 중국 내 까르푸 불매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프랑스 측에서는 특사 파견 및 중국 내 대지진 복구를 위한 기부금으로 분쟁을 해결, 불매운동을 잠재운 바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